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usbands' Experience of Violence suffered in their Growing Ages,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ons of the Couple on the Husband-to-Wife Violence

- Focused on the Continuum of Violence Assumption -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주거학과

강사 김예정**

교수 김득성

Dept. of Child and Housing,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Kim, Yea-Jung

Professor : Kim, Deuk-Sung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assumption that the husband-to-wife violence lies upon a continuum of severity and to study how the premarital violence experience of husbands, along with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marital interactions, can be the cause of husbands' violence against their wives.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aims at constructing a causal model of the husband-to-wife violence.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 surveyed 242 husbands residing in Pusan and another 50 husbands as violent assaulters in major cities of Kore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e research can verify the two assumptions that "the group which has once inflicted a severe form of violence can easily inflict minor violences" and that "the factors related to violence play a far greater role in severe violences than in weaker violences." As a result,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study of a regular household violence can be based on the continuum of violence assumption. Secondly, in the husbands' experience of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their experienced childhood abuse from their parents, in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emper control ability and their patriarchal sex role attitude, and finally in marital interactions, marital conflicts and distractor of communication played great role in their influence on the husband-to-wife violence. Thirdly, as the various factors which contribute to the violence against the wife have cause-and-effect rule, we shall be able to make a model which can be conceptualized.

▲ 주요어 : 아내폭력(husband-to-wife violence), 성장기 폭력경험(premarital violence experience),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부부간 상호작용(interactions of the couple), 아내폭력의 인과모형(causal model of the husband-to-wife violence)

1. 연구의 필요성

가정폭력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된 것은 서구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가정내 남편

의 아내폭력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실상을 사회문제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특히 남편의 아내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94.1%를 차지하며 그 심각성 또한 실태조사(김익기·심영희, 1993; 김재엽, 1998c; 변화순, 1994; 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주저자 : 김예정 (E-mail : efood1@hanmail.net)

허남순, 1993)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곧 '남편의 아내폭력'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아내폭력에 초점을 둔 연구와 개입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내폭력 분야에서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두 가지 기본 가정은 폭력의 '연속성' 대 '불연속성'이다(Gelles, 1991). 이 두 가정은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진다. 폭력의 '연속성' 가정은 약한 유형의 폭력에서 심한 유형의 폭력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보며, 폭력유형에 상관없이 폭력의 원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Sugarman, Aldarondo, & Boney-McCoy, 1996).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폭력 발생률 자체가 어떤 경향을 가진다고 보지 않으며, 폭력의 원인은 폭력유형에 따라 핵심적인 속성에서 다르다고 가정한다(Dutton, 1988; Hamberger & Hastings, 1988).

이 두 가지 가정은 가정폭력 연구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국외 연구들은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것은 Gelles(1991)가 지적하였듯이 폭력의 '연속성' 가정은 폭력행동을 조작화하고 측정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용적이며, 폭력유형에 상관없이 폭력의 원인이 동일하므로 약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초기 개입 계획으로 심한 유형의 폭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파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없으므로,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검증해 봄으로써 폭력의 원인 규명이 폭력의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할지 아니면 전체 폭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해 시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초기 개입의 효율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내폭력의 원인을 규명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내폭력은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과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보여진다. 즉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인 근원가족에서의 부모간 폭력폭격과 아동기 학대경험 및 데이트 폭력경험, 남편의 심리적 특성인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거부장적 성역할태도, 분노조절력 및 알콜사용, 그리고 부부간 상호작용인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이 남편의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성장기 폭력경험과 심리적 특성은 폭력을 행사할 소지를 증가시키며, 폭력을 처음으로 행사할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위험요인'으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자연적으로나 개입의 결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위험요인'으로 대별될 수 있다(Aldarondo & Sugarman, 1996; Vasta, 1982).

그런데 아내폭력의 원인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설명력이 손상된 감이 없지 않다. 우선 연구 대상의 문제로, 많은 연구가 피해아내를 대상으로 하여 아내폭

력의 원인을 규명하였다(최규련, 1996)는 점이다. 이는 가해자인 남편보다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Rosenbaum, 1988), 이러한 간접적인 자료로는 남편의 실질적인 폭력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연구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연구는 제 변인과 아내폭력간 단순상관만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둘째, 아내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각 변인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독자적인 영향력은 확인하였지만,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의 상대적 영향력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최근 국외연구에서는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아내폭력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검증한다. 둘째,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과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힌다. 셋째,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밝힌다. 본 연구는 폭력남편의 행동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폭력의 '연속성' 대 '불연속성' 가정

폭력의 '연속성' 대 '불연속성' 가정은 가정폭력, 특히 아동폭력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쟁점 중 하나이다(Gelles, 1991). 폭력의 '연속성' 가정에서 가정폭력은 폭력 없음 혹은 가장 약한 폭력유형(예; 밀기)에서부터 매우 심한 폭력유형(예; 살인)에 이르는 연속체 위에 순서대로 배열될 수 있으며, 가장 약한 유형의 폭력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폭력유형이 심각해질수록 발생률은 낮아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폭력의 원인은 폭력유형(약한 폭력 또는 심한 폭력)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본다. 반면에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은 폭력발생률 자체가 폭력유형에 따라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또한 폭력의 원인은 폭력유형(약한 폭력 또는 심한 폭력)에 따라 상이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핵심적인 속성이나 행동에서의 차이는 폭력행위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garman, Aldarondo, & Boney-McCoy, 1996).

선행연구 중 폭력의 '연속성' 가정과 '불연속성' 가정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경험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무의식중에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는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국내외 연구에서 폭력유형별 발생률 실태를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은 조사대상의 대략 60%~90% 이상이 사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광

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다음이 신체적 폭력이며,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약한 폭력유형이 심한 폭력유형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폭력의 원인규명에 있어 선행연구는 폭력유형에 따라 원인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즉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폭력유형에 따른 원인을 규명한 연구에서도 약한 폭력유형과 심한 폭력유형의 원인을 다른 속성이나 행동이라고 가정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

한편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내폭력자는 핵심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폭력가해자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의 '연속성'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Dutton, 1988; Hamberger & Hastings, 1986; Shields, McCall, & Hanneke, 1988). 폭력의 불연속성을 가정하는 연구자는 폭력에 대한 동기나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 특성에 기초해 폭력가해자를 구분하거나(Caesar, 1988; Elbow, 1977; Hamberger & Hastings, 1988), 폭력의 유형과 빈도 그리고 가족의 타인에 대한 폭력여부 등 폭력과 관련된 행동에 기초하여 폭력가해자를 구분하였으며(Gondolf, 1988), 심리적 특성과 폭력 관련 행동 둘다에 기초하여 폭력가해자를 구분하기도 하였다(Saunders, 1992). 또한 폭력가해자 유형별로 원인이 다른 만큼, 개입의 내용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Snyder & Fruchtman, 1981).

이상에서 폭력의 '연속성' 가정과 '불연속성' 가정 중 어느 접근이 폭력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타당한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두 가정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면적이고 복잡한 폭력현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리고 나아가 적절한 개입을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유형과 빈도의 폭력에는 폭력의 '연속성' 가정이 더 설명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비교적 심한 유형과 빈도의 폭력에는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이 더 설명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성향적 위험요인 중 성장기 폭력경험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내폭력의 원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즉 아동기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률이 높았고(김득성·김정옥·송정아, 2000; 김재엽, 1998c; 손정영, 1998; Gelles, 1972; Hotaling & Sugarman, 1990; Margolin, John, & Foo, 1998; Rosenbaum & O'Leary, 1981; Rouse, 1984;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Telch & Lindquist, 1984; Ulbrich & Huber, 1981),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혼 후 자녀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다(김득성·김정옥·송정아, 2000; 김정옥,

1985, 1987; 김정옥·전형미·정복희, 1993b; 손정영, 1998; Gelles, 1972; Hotaling & Sugarman, 1990; Rosenbaum & O'Leary, 198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Straus, 1980; Ulbrich & Huber, 1981). 그러나 다른 위험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부모간 폭력목적과 아내폭력과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Hotaling과 Sugarman, 1990), 아동기에 폭력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커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들은 자라서 학대자가 될 것이다'라고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겠다(Gelles, 1997). 또한 근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과 성인이 되었을 때의 폭력행동간에는 약한 상관(Tonyodonato & Crew, 1992)이 있거나 상관이 없음(MacEwen & Barling, 1988)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부모간 폭력목적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데이팅 폭력경험 또한 결혼관계에서 아내폭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전 데이팅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종단연구(Makepeace, 1986; Roscoe & Benaske, 1985; Stets & Pirog-Good, 1987)에서 이들이 이후 결혼관계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데이팅 폭력은 미래의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장을 제공하며(Bernard & Bernard, 1983; Laner & Thompson, 1982; Roscoe & Benaske, 1985), 데이팅 관계에서 경험된 폭력의 역동성이 결혼관계 내로 이동됨을 알 수 있었다(김예정·김득성, 1999a에서 재인용). 이처럼 데이팅 폭력경험은 아내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내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에서는 데이팅 폭력경험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남편의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폭력수용태도는 아내폭력의 원인이 가부장적인 문화규범과 가치에 있다고 보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아내폭력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아내폭력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김광일, 1987; 김재엽·이서원, 1997; Rosenbaum & O'Leary, 1981; Shin, 1995; Straus, 1974;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임상연구에서 구타하는 남편의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혜숙·손연주, 1997).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도 폭력행동과 상관이 있었다. 김재엽(1998a)의 연구에서 아내구타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의 50%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의 14%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연구에서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편의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와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Ball-Rokeach, 1973; Straus, 1977, 김재엽, 1998a에서 재인용).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태

도와 폭력수용태도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충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도와 행동은 정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태도와 행동이 얼마만큼 일치할 것인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홍대식, 1995), 이 두 변인이 상황적 위험요인을 매개로 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신병리이론에 따르면 아내구타자들은 성격적 결함이나 알콜중독과 같은 공통된 심리적 특성을 가지며, 아내폭력은 이러한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가학적인 행동으로 설명된다(Gelles & Straus, 1979).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주 발견되는 것 중 하나는 분노조절력의 부족이다(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Makepeace(1986)의 연구에서 남성의 폭력행동의 동기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28.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남편의 분노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규모 조사를 실시한 연구(김재엽 등, 1999)에서 분노수준이 높은 남편집단이 전체 아내구타율의 45%를 차지해 분노수준이 낮은 남편집단의 아내구타율인 25.4%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분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분노가 통제될 수 없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는 기능장애와 폭력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알콜 역시 폭력과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변인 중 하나이다. 정신병리이론에 의하면, 알콜을 섭취하게 되면 가치판단력이 손상되고 억제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인간의 난폭해지려는 잠재성이 분출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알콜이나 약물에 취약한 남편일수록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콜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임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졌지만, 알콜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김갑숙, 1991; Kantor & Straus, 1990)와 그렇지 않은 경우(김재엽 · 이서원, 1998; 손정영, 1998)가 있어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Gelles(1993)는 알콜이 폭력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인적, 상황적, 사회적 요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콜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의문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콜이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충된 결과로 인해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에, 다른 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개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된 성격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황적 요인인 부부간 상호작용은 아내폭력을 부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는 가족체계이론으로 설명된다. 부부가 가정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겪는 심리적 긴

장인 부부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더 복잡한 갈등으로 변하고 그 압력이 가중되어 결국에는 부부간의 폭력으로 발전되게 된다(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송영자, 1986)에서, 갈등해결을 위해 부부의 27.5%가 말다툼을 하며 12.3%가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정옥, 1985)에서도 갈등해결 과정에서 부부의 64.3%가 언어적 폭력을, 25.2%가 폭력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870명의 백인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Pan, Neidig, & O'Leary, 1994)에서도 부부갈등은 아내에 대한 약한 신체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밝혀졌다. 502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Aldarondo & Sugarman, 1996)에서도 부부갈등은 아내폭력을 지속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는데, 부부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은 외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에 부부갈등을 언어적으로 표출하는 상황이 아내폭력과 더욱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부갈등에 대한 다툼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또한 대표적인 부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다. 심혜숙 · 손연주(1997)가 Satir의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아내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산만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함이 발견되었다. 즉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적당한 구실을 찾아서 구타하며, 아내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는 것에 약하고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무책임하고, 아내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진지하게 의논을 하려고 하면 화부터 내거나 회피하여 대화하기가 힘들며, 구타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거나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심혜숙 · 손연주, 1997). 또한 김득성 · 김정옥 · 송정아(2000)의 연구에서도 산만형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산만형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는 경험적으로 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된 것도 있고, 간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된 것도 있으며, 어떤 변인은 직·간접적 관련성이 모두 입증된 경우도 있었다. 즉 성장기에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 폭력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Dutton, Starzomski, & Ryan, 1996; Stith & Faley, 1993; Gelles & Straus, 1979; Ulbrich & Huber, 1981),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장한 남성은 가장으로서 아내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발달시켰다

(Stith & Faley, 1993). 성장기 폭력경험은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 방출을 위한 일차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하며(Matin, 1987), 알콜남용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Julian, Mckenry, Gavazzi, & Law, 1999). 이처럼 폭력에 취약한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부부간 갈등이 많거나 역기능적 상호작용 동안 폭력을 많이 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김갑숙, 1991; 김재엽, 1998c; Leonard & Blane, 1992; Sugarman & Hotaling, 1989), 특히 학대받은 적이 없는 남성은 폭력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폭력행동을 촉진시키지 않은 반면에, 이미 학대받은 적이 있는 남성은 생활스트레스, 결혼불만, 그리고 알콜 사용의 증가와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폭력행동을 유발할 위험이 증가하였다(Gelles 등, 1994). 따라서 성장기 동안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결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부부갈등이 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하는 상황하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증가되며,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폭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은 약한 유형의 폭력도 사용하는가?
- 연구문제 2.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과 약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 연구문제 3.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 각각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기혼남편 242명과 전국 6개 도시에서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기혼남편 50명이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기혼남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폭력 유형별(심리적 폭력, 약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일반가정 남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표 1-1>과 <표 1-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1> 일반 남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4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대 이하	81(33.9)	수입	50만원 미만	1(0.4)
	40대	83(34.7)		50-100만원	19(7.9)
	50대 이상	75(31.4)		101-150만원	51(21.3)
교육 수준	초등졸	4(1.7)	주거 상태	151-200만원	50(20.8)
	중등졸	21(8.8)		201-250만원	39(16.3)
	고등졸	97(40.4)		251-300만원	29(12.1)
직업	대졸	107(44.6)	결혼 상태	300-400만원	38(15.9)
	대학원이상	11(4.6)		401만원 이상	13(5.4)
	무직,정년퇴직자 고용직,기능직, 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숙련/반숙련직, 생산직 소규모자영업 일반사무직, 공무원 일반전문 기술직 고위전문직	17(7.1) 10(4.2) 12(5.0) 45(18.9) 36(15.1) 71(29.8) 38(16.0) 9(3.8)		주거 상태	자가
전세			52(21.5)		
월세 및 기타			3(1.2)		
결혼 상태			초혼	241(99.6)	
			동거	1(0.4)	
			기간	10년 이하	74(31.0)
20년 이하				51(21.3)	
30년 이하				101(42.3)	
자녀 수			31년이상	13(5.4)	
			0명	18(7.4)	
			1-2명	159(46.3)	
3명 이상			65(26.9)		

이상에서 남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은 일반남편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았고, 직업지위도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총 가정수입도 일반남편의 가정은 50~100만원이 적은 비율(7.9%)을 차지한 반면에,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의 가정은 높은 비율(30%)을 차지하여 경제적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상태도 일반남편 가정은 자가가 가장 높은 비율(77.3%)을 차지한 반면에,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의 가정은 월세 및 기타(4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주거상태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결혼기간도 일반남편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가정의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입건 남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¹⁾

N=50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대 이하	17(34.0)	수입	50만원 미만	8(16.0)
	40대	23(46.0)		50-100만원	15(30.0)
	50대 이상	10(20.0)		101-150만원	14(28.0)
교육 수준	초등졸	10(20.0)	직업	151-200만원	6(12.0)
	중등졸	11(22.0)		201-250만원	2(4.0)
	고등졸	18(36.0)		251-300만원	3(6.0)
	대졸	10(20.0)		300-400만원	0(0.0)
	대학원이상	1(2.0)		401만원 이상	2(4.0)
직업	무직, 정년퇴직자	7(14.3)	주거 상태	자가	14(28.0)
	고용직, 기능직, 노무직			전세	16(32.0)
	판매/서비스직			월세 및 기타	20(40.0)
	숙련/반숙련직, 생산직	8(16.3)	결혼 상태	초혼	36(72.0)
	소규모자영업	8(16.3)		재혼	7(14.0)
	일반 사무직, 공무원	10(20.4)		동거	7(14.0)
	일반전문 기술직	4(8.0)	결혼 기간	10년 이하	25(52.1)
	고위전문직	0(0.0)		20년 이하	13(27.1)
				30년 이하	7(14.6)
				31년 이상	3(6.2)
			자녀 수	0명	4(8.0)
				1-2명	35(70.0)
		3명 이상		11(22.0)	

<표 2> 일반가정 남편과 입건 남편의 아내폭력 정도

집 단 구 분	심리적 폭력 명 (%)	약한 신체적 폭력 명 (%)	심한 신체적 폭력 명 (%)
일반가정 남편	124 (51.2)	81 (32.5)	16 (6.6)
입건 남편	47 (95.9)	40 (81.6)	18 (36.7)

아내폭력의 정도를 살펴보면, 입건 남편은 일반가정의 남편보다 아내에게 약한 신체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을 더 많

1) 본 연구의 입건남편의 입건경위는 피해아내가 신고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구성원의 신고가 4건, 주민의 신고가 9건 등이었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폭력사건을 일반폭력사건과 분리해 관리하는 처리절차가 확립되어 있지않아 입건남편의 모집단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 사용하였으며, 특히 심리적 폭력은 대부분의 입건남편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아내폭력

아내폭력의 발생률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폭력을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발생한 폭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Straus 등(1996)의 Conflict Tactics Scale(CTS)Ⅱ를 김예정·김득성(1999a)이 번안한 것과 Margolin, John 및 Foo(1998)가 사용한 가정폭력지표(DCI: Domestic Conflict Index)를 참고로 문항내용이 중복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은 심리적 폭력 4문항, 약한 신체적 폭력 4문항, 심한 신체적 폭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1점), 1년에 1~2번(2점), 1년에 3~4번(3점), 한 달에 1번(4점), 한 달에 2~3번(5점), 일주일에 1번(6점), 일주일에 2~3번(7점), 거의 매일(8점)의 8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폭력이 많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폭력유형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한 문항(아내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기)은 전체 문항과 상관이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심리적 폭력은 $\alpha=.77$, 약한 신체적 폭력은 $\alpha=.90$, 심한 신체적 폭력은 $\alpha=.93$ 이다.

2) 부모간 폭력목격

부모간폭력목격을 측정하고자 MacEwen과 Barling(1988)의 근원가족에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평가하는 4문항 척도를 김예정·김득성(1999a)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보지 못했다(1점), 가끔 보았다(2점), 자주 보았다(3점)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을 많이 목격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2$ 이다.

3) 아동기 학대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고자 MacEwen과 Barling(1988)의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김예정·김득성(1999a)이 수정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해서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1점), 가끔 있었다(2점), 자주 있었다(3점)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5$ 이다.

4) 데이팅 폭력경험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팅 폭력을 조사한 김예정·김득성(1999a, 1999b)의 연구의 데이팅 폭력경험 척도에서 폭력유형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폭력

경험을 묻는 1문항, 신체적 폭력경험을 묻는 3문항, 성적 폭력 경험을 묻는 1문항을 포함한 총 5문항이 사용되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1점), 가끔 있었다(2점), 자주 있었다(3점)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테이팅 파트너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87$ 이다.

5) 폭력수용태도

Margolin, John 및 Foo(1998)의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아내가 남편의 빵을 때리는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내가 욕설을 하며 먹살을 움켜잡는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2문항과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앞의 두 가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2문항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범주는 해서는 안 된다(1점)~해도 된다(3점)의 3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6$ 이다.

6)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공미혜(1997), 공미혜·박기자(1998), 윤경자·최규련(1999)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의사결정, 가사일, 아내의 가정 내외 가정 밖 활동에 대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할 수 있는가와 폭력 및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5$ 이다.

7) 분노조절력

건강샘(1999)의 분노반응에 관한 자가진단 5문항과 Gottman(1994)의 분노범람에 대한 자가진단 14문항을 참고로 하여, 남편이 아내와 다툰 때의 감정변화에 대한 내용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자주 그렇다(3점)의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조절력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9$ 이다.

8) 알콜중독성

알콜중독 증상이 있는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립정신병원이 개발한 진단법(건강샘, 1999)을 참고로 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아니다(1점), 그렇다(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알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80$ 이다.

9) 부부갈등

송영자(1986), 김갑숙(1991), 최규련(1995), Suito, Pillemer 및 Straus(1990), 그리고 Sugarman과 Aldarondo(1996)의 척도를

참고하여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성격문제, 성생활, 자녀문제, 시가/처가와와의 관계,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문제 등의 여섯 갈등영역의 총 19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의 내용으로 인해 부부간에 언성을 높여 다툰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다툰 적이 없다(1점), 가끔 다투었다(2점), 자주 다투었다(3점)의 3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많이 다투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86$ 이다.

10) 산만형 의사소통

Satir의 의사소통유형 척도를 김정옥·송정아·김득성(1999)이 사용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대화하는 방식 중 산만형 의사소통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만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0$ 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일반가정의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은 2000년 3월~9월에 걸쳐 전국 주요도시에 소재 한 검찰청에서 표집 하였다. 일단 7개 주요도시로 서울, 대전, 수원, 인천, 광주, 대구, 부산을 선정한다. 다음, 각 도시의 검찰청(서울: 본 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의정부지청, 대전지방법검찰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의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협조를 부탁하는 글을 보내어 협조의 동의를 구한다. 다음, 실무자가 입건된 남편에게 설문지를 주어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사례가 많지 않았고, 실무자의 업무과다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76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된 것과 지난 1년간 어떤 유형의 폭력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한 총 5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반가정의 남편을 자료수집하기 위해 부산시 6개구(남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에 거주하는 기혼부부를 유의표집 하였고, 총 300부가 배포되었으나 응답내용을 부실하게 채운 사람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구하였다.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과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고, 인과모형 검증 을 위해서 상관분석, 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폭력의 '연속성' 가정 검증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집단을 조사대 상 남편의 폭력척도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TSII는 폭력의 '강도'에 따라 폭력의 점진적인 상승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 심리적 폭력만 사용한 사 람, 심리적 폭력과 약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사람, 심리적 폭 력과 약한 신체적 폭력 및 심한 신체적 폭력까지 사용한 사람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류방식을 기술하면, 심리적 폭력 문항(총 4문항) 과 전체 신체적 폭력 문항(총 8문항)의 응답범주 중 '전혀 없음' 에 응답한 사람은 '비폭력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심리 적 폭력 문항(총 4문항) 중 최소 1문항 이상에 1번이라도 행사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시에 전체 신체적 폭력 문항에는 '전 혀 없음'에 응답한 사람은 '심리적 폭력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약한 신체적 폭력 문항(총 4문항) 중 최소 1문항 이상에 1번이라도 행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시에 심한 신체적 폭 력 문항에는 '전혀 없음'에 응답한 사람은 '약한 신체적 폭력집 단'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심한 신체적 폭력 문항(총 4문 항) 중 최소 1문항 이상에 1번이라도 행사하였다고 응답한 사람 은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네 집단은 상 호 배타적이며 위계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폭력강도가 낮은 집 단에 속한 사람(예; 심리적 폭력집단)은 폭력강도가 높은 집 단에 속한 사람(예; 약한 신체적 폭력집단)이 사용한 폭력을 사용 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Sugarman, Aldarondo, & Boney-McCoy, 1996).

이러한 분류방식에 의해 네 개의 폭력집단이 구성되었으며, 집단별 경향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 3> 폭력집단별 빈도 및 비율

N=291

집 단 구 분	심리적 폭력사용		약한 신체적 폭력사용	
	빈도(명)	%	빈도(명)	%
약한 신체적 폭력집단 (n=87)	75	86.2	87	100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 (n=34)	34	100	34	100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은 약한 유형의 폭력도 사용하는 가' 라는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약한 신체적 폭력 집단'과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이 약한 유형의 폭력을 얼마나 행사 하였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폭력집단별 폭력사용빈도

집 단 구 분	빈도	%
비폭력집단	108	37.1
심리적 폭력집단	62	21.3
약한 신체적 폭력집단	87	29.9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	34	11.7

먼저 약한 신체적 폭력집단에 속한 87명의 남편들 중 75명 (86.2%)이 약한 폭력유형인 심리적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약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폭력유형인 심리적 폭력도 함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에 속한 34명의 남편들은 모두 심리적 폭 력과 약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한 신체적 폭력집단과 마찬가지로,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에 속한 사람은 약한 폭력유형인 심리적 폭력과 약한 신체적 폭력을 동 시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약한 폭력유형일 수록 발생률이 높고 반대로 심한 폭력유형일수록 발생률이 낮 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며,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사람은 약한 유형의 폭력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과 약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동일하나 아니 면 다른가' 라는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통해 네 개의 폭력집단별 관련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 았으며, 각 하위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é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5>를 살펴보면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으로 갈 수록 관련변인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선형적인 경향성을 알 수 있다.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을 지지하려면 폭력집단과 관련 변인들간 非선형성(예; 2차 함수나 곡선성)이 나타나야 한다. 따 라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이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한 집단으로 갈수록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아 본 연구결과는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Daly와 Wilson(1980, Straus(1983), Sugarman, Aldarondo 및 Boney-McCoy(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집단별 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부모간 폭력목적, 아동기 학대경험, 폭력수용태도, 산만형 의사소통은

<표 5> 폭력집단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N=291

변인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 (N=34)	약한 신체적 폭력집단 (N=87)	심리적 폭력집단 (N=62)	비폭력 집단 (N=108)	F값
부모간 폭력목적	6.21 a	5.13 b	4.78 b	4.73 b	12.7**
아동기 학대경험	8.63 a	7.28 b	7.00 b	6.63 b	14.6**
데이팅 폭력경험	7.43 a	6.23 b	5.80 bc	5.26 c	24.0**
폭력 수용태도	4.76 a	4.31 b	4.16 b	4.06 b	7.4**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14.56 a	13.79 ab	12.68 b	12.42 b	6.3*
분노조절력	9.48 a	7.83 b	7.19 bc	6.33 c	31.8**
알콜중독성	15.30 a	14.35 a	14.26 ab	13.19 b	9.5**
부부갈등	30.27 a	25.98 b	24.10 bc	22.01 c	36.8**
산만형 의사소통	15.03 a	12.49 b	12.48 b	11.81 b	7.1**

* p<.001 **p<.0001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데이팅 폭력경험, 분노조절력, 알콜중독성, 부부갈등은 신체적 폭력집단이 비폭력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이 심리적 폭력집단, 비폭력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알콜중독성은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이 비폭력집단보다, 약한 신체적 폭력집단이 비폭력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폭력집단별 특성을 변별하는 변인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데이팅 폭력경험, 분노조절력, 알콜 중독성 및 부부갈등은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사람과 전혀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특성이며, 부모간 폭력목적, 아동기 학대경험, 폭력수용태도 및 산만형 의사소통은 심한 유형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먼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아내폭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교락변인²⁾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과 수입)³⁾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남편의 성장기 폭력 경험, 심리적 특성, 부부간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내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1)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부모간 폭력목적, 아동기 학대경험, 데이팅 폭력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아내폭력에 대한 성장기 폭력경험의 중회귀분석 결과 N=291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β	β
부모간 폭력목적	.30***	.16*	.12
아동기 학대경험		.26***	.16*
데이팅 폭력경험			.28**
교육수준			-.04
수입			-.11
F	27.2**	21.0**	15.0**
R ²	.09	.14	.24

* p<.05 ** p<.001

독립변인 중 아내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3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과 수입은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부모간 폭력목적은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동기 학대경험도 영향력(β=.16)이 낮아졌다. 반면에 데이팅 폭력경험은 가장 영향력(β=.28)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팅 폭력경험이 모델에 투입되자 아내폭력에 대한 설명력이 14%(R²=.14)에서 24%(R²=.24)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데이팅 폭력경험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세 변인이 동시에 고려될 때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동기 학대경험과 데이팅 폭력경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데이팅 폭력경험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데이팅 폭력경험이 아내폭력의 전

2) 교락변인(confounding variables)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둘 다와 상관이 있는 제3의 변인으로, 이 변인을 제거하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이 없어질 수 있는 허위상관을 발생시켜 인과에 단하지 않게 함으로써,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3) 본 연구변인인 데이팅 폭력경험, 알콜중독성은 교육수준, 수입과, 분노조절력과 부부갈등은 교육수준과 상관이 있으며, 동시에 아내폭력과 상관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 중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은 일반가정 남편보다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으므로, 이들 변인의 아내폭력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다.

조자임을 입증한 Makepeace(1986), Roscoe와 Benaske(1985), Stets와 Pirog-Good(198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데이팅 관계에서 경험된 폭력의 역동성이 결혼관계 내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전의 데이팅 폭력은 관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폭력의 예방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2) 남편의 심리적 특성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남편의 심리적 특성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폭력수용태도,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분노조절력, 알콜중독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아내폭력에 대한 심리적 특성의 중회귀분석 결과
N=291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β	β	β	β
폭력수용태도	.19**	.13*	.05	.04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25***	.14*	.13*
분노조절력			.32***	.29***
알콜중독성				.11
교육수준			-.09	-.07
수입				-.14*
F	10.5***	15.1***	16.6***	12.8***
R ²	.04	.10	.19	.22

* p<.05 ** p<.01 ***p<.001

독립변인 중 아내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4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분노조절력(β=.29), 수입(β=-.14), 가부장적 성역할태도(β=.13)의 순으로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분노조절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콜중독성과 함께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수입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입건남편이 일반가정의 남편보다 경제수준이 낮았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 남편의 생활습관상의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높은 음주물이라고 지적하였듯이(김재엽·이서원, 1998), 남편의 알콜중독성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추가되었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크게 높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분노조절력(β=.29), 수입(β=-.14), 가부장적 성역할태도(β=.13)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분노조절력(β=.29)이 아내폭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폭력가해자들이 폭력행사의 동기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장 많이 품았던 Makepeace(1986)의 결과를 뒷받침함을 알 수 있다.

3)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부부갈등, 산만형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아내폭력에 대한 부부간 상호작용의 중회귀분석 결과
N=291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β	β
부부갈등	.48**	.41**
산만형 의사소통		.18*
교육수준	-.09	-.09
F	45.6**	35.0**
R ²	.25	.27

* p<.01 ** p<.001

분석결과 부부갈등(β=.41)과 산만형 의사소통(β=.18)은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다툼이 많을수록, 산만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였다. 산만형 의사소통이 투입되자 부부갈등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며, 산만형 의사소통의 추가로 인한 모델의 아내폭력에 대한 설명력이 27%(R²=.27)에 불과해 부부갈등의 단독 설명력(25%)을 그다지 높이지는 못하였다.

이상에서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은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부부갈등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가족체계적 관점이 아내폭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앞으로의 아내폭력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에서는 데이팅 폭력경험, 아동기 학대경험의 순으로, 심리적 특성에서는 분노조절력,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순으로, 그리고 부부간 상호작용에서는 부부갈등, 산만형 의사소통 순으로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 중 국내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데이팅 폭력경험이 아내폭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그 외 변인들은 선행연구의 단일변량분석에서는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변인이 통제된 후에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고, 통제변인인 수입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고, 교육수준은 아예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가정

폭력에 보다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아내폭력이 높은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 아내폭력은 낮은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한 Straus(1980)와 아내폭력은 수입이나 교육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발생함을 밝힌 김제엽(1998b)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앞서 단계적 중회귀분석 중 최종모델에서 아내폭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남편의 성장기 폭력 경험 중 아동기 학대경험과 데이팅 폭력경험, 심리적 특성 중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분노조절력, 그리고 부부간 상호작용인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에 따라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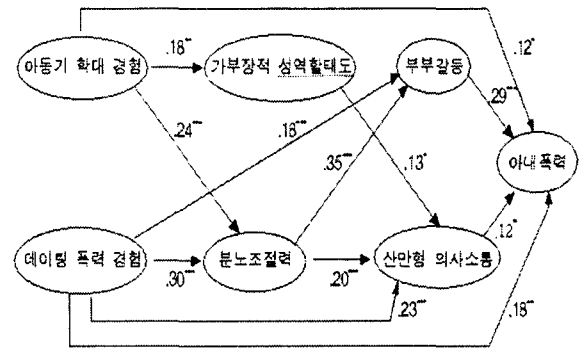
자료분석을 통해 나타난 경로모형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9>와 <그림1>과 같다.

<표 9>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회귀분석 결과
N=29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 ²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아동기 학대경험	.18**	.06***
	데이팅 폭력경험	.10	
분노조절력	아동기 폭력경험	.24***	.21***
	데이팅 폭력경험	.30***	
부부갈등	아동기 학대경험	.09	
	데이팅 폭력경험	.18**	.30***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10	
	분노조절력	.35***	
산만형 의사소통	아동기 학대경험	.05	
	데이팅 폭력경험	.23***	.20***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13*	
	분노조절력	.20**	
아내폭력	아동기 학대경험	.12*	
	데이팅 폭력경험	.18**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07	.35***
	분노조절력	.07	
	부부갈등	.29***	
	산만형 의사소통	.12*	

* p<.05 ** p<.01 *** p<.001

R²=.35



<그림 1> 경로모형

첫째,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심리적 특성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경험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분노조절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두 변인은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고, 데이팅 폭력경험도 분노조절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분노조절력은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서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질적 위험요인간 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에 아동기 학대경험과 데이팅 폭력경험은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부부간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데이팅 폭력경험은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서 성향적 위험요인이 상황적 위험요인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데이팅 폭력경험은 부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아내폭력을 유발시키는 잠재적인 힘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남편의 심리적 특성이 부부간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분노조절력은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성향적 위험요인이 상황적 위험요인에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심리적 특성과 부부간 상호작용을 동시에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경험과 데이팅 폭력경험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분노조절력,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성향적 위험요인이 상황적 위험요인에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향적 위험요인이 상황적 위험요인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성향적 위험요인과 상황적 위험요인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아내폭력에 대한 성향적 위험요인과 상황적 위험요인의 인과효과

N=291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 학대경험	.12	.03	.15
데이팅 폭력경험	.18	.12	.30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	.02	.02
분노조절력	-	.13	.13
부부갈등	.29	-	.29
산만형 의사소통	.12	-	.12

아내폭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부부갈등($\beta=.29$)이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데이팅 폭력경험($\beta=.18$), 그 다음으로 아동기 학대경험($\beta=.12$)과 산만형 의사소통($\beta=.12$)으로 나타났다. 분노조절력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매개변인을 통해서 아내폭력에 상당한 영향($\beta=.13$)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팅 폭력경험은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상당한 간접적인 영향($\beta=.12$)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로모형에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아내폭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인과모형분석에 있어서 모든 독립변인의 최종 종속변인인 아내폭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35%($R^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 폭력경험인 데이팅 폭력경험과 부부간 상호작용인 부부갈등은 아내폭력에 강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내폭력에 대한 사회학습이론과 가족체계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분노조절력의 아내폭력에 대한 간접효과에서 정신분석이론이 여전히 설명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적 효과만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에서 간과되어온, 다른 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와 함께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과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한 유형의 폭력도 사용하였으며, 심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약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일하였다. 이로써 폭력의 '연속성' 가정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폭력은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약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

치하면 점점 더 심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약한 유형의 폭력이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심각한 아내폭력을 예방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개입에 있어 어떤 유형의 폭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한 다음 폭력집단별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에서 심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남편은 심리적 폭력 및 약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남편보다 부모간 폭력목적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았고, 폭력수용태도가 높았으며 산만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내용과 전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폭력의 '연속성' 대 '불연속성' 가정은 배타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쪽이 지지되면 자연히 다른 한쪽은 기각됨을 의미하지만(Sugarman, Aldarondo, 및 Boney-McCoy, 199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내폭력 척도에는 극단적 폭력유형이 포함되지 않았고,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표본대상과 크기 및 관련변인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이 지지되지 않았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속연구에서 폭력의 '불연속성' 가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둘째, 성장기 폭력경험에서는 데이팅 폭력경험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특성에서는 분노조절력이 낮을수록,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부부간 상호작용에서는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산만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하였다.

상대적 영향력이 고려될 때 성장기 폭력경험에서는 데이팅 폭력경험이 남편의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지금까지 국내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데이팅 폭력경험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아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혼부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결혼 전 예비부부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폭력의 예방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물론이고 결혼 전 데이팅 관계에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아내폭력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장기 폭력경험에서 데이팅 폭력경험 다음으로 아동기 학대경험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간 폭력목적은 데이팅 폭력경험이 회귀식에 추가되면서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에서 성장기 폭력경험에서도 간접적인 경험보다 직접적인 경험이 아내폭력에 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아동기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뿐만 아니라, 폭력의 결과로 타박상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 경험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아동학대 및 체벌문제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폭력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폭력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입

장이 팽팽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좀더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아동훈육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남편의 심리적 특성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분노조절력은 주로 임상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 가해자남편의 특성으로 알려졌다지만, 일반가정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등(1999)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아내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은 폭력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난 감정이나 분노를 적절히 표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자발적 의지를 부여해주는 개입이 요구된다.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선행연구(김재엽·이서원, 1997; 김재엽 등, 1999; Shin, 1995)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예상대로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내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평등한 성역할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폭력수용태도와 알콜중독성은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폭력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폭력에 대한 태도만을 묻는 폭력수용태도보다 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알콜이 모든 회귀식에서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알콜은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힌 선행연구(김재엽·이서원, 1998; 손정영, 199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짐으로써 폭력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 부부간 상호작용 요인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김득성·김정옥·송정아, 2000; 김정옥, 1985; 김정옥 등, 1993a, 1993b; 송영자, 1986; 신영화, 1986; 심혜숙·손연주, 1997; Straus 등, 1980)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내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기술훈련과 함께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확인하고 기능적인 유형으로 변화시키는 의사소통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 위험요인과 상황적 위험요인은 인과적 관련성을 가진다. 즉 성장기 폭력경험 중 데이팅 폭력경험은 분노조절력, 부부갈등 및 산만형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심리적 특성 중 분노조절력은 부부갈등과 산만형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 학대경험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확인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안정적 요인 중 성장기 폭력경험은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황적 위험요인인 부부간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성향적 위험요인 중 심리적 특성은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상황적 위험요인인 부부간 상호작용을 통

해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향적 위험요인 중 성장기 폭력경험이 심리적 특성보다 폭력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폭력에 관련된 과거경험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현재의 태도나 심리적 특성보다 더 영향적임을 암시한다. 특히 데이팅 폭력경험과 분노조절력은 다른 변인을 매개해 아내폭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가해자남편의 행동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아내폭력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증재나 개입은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계획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아내폭력 원인규명에 있어 아내 쪽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연구결과에서 부부체계내의 상호작용이 폭력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아내 쪽 원인도 함께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향적 위험요인이 상황적 위험요인을 매개하여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력 있는 변인을 발견하고 검증하여 인과모형을 정교화 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남편은 보다 심한 유형의 폭력사용을 보고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입건남편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력가해자 남편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기초해야 함으로, 경·검찰과 대학의 연계와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폭력가해자 남편에 대한 조사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3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1월 21일

【참 고 문 헌】

-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 아내구타 : 부산 여성의 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9, 49-79.
- 공미혜·박기자(1998). 폭력남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일고 : Duluth모형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연구*, 9, 77-94.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득성·김정옥·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익기·심영희(1993).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예정·김득성(1999a).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Ⅰ)-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별쇄본.
- 김예정·김득성(1999b).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Ⅱ)-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별쇄본.
-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 _____(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엽(1998a).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지*, 2, 87-114.
- _____(1998b).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5(8), 133-155.
- ____·최선희·장희숙·이근후·이명숙·김기환·박상언(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손정영(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도시 중산층부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혜숙·손연주(1997).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특성연구.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 7(1).
- 윤경자·최규련(1999). 부부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5-6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 허남순(1993). 아내 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2, 277-320.
- Aldarondo, E. & Sugarman, D. B.(1996). Risk marker analysis of the cessation and persistence of wife assault.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1010-1019.
- Caesar, P.L.(1988). Exposure to violence in the families-of-origin among wife-abusers and maritally non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3, 49-63.
- Dutton, D.G., Starzomski, A., Ryan, L.(1996). Antecedents of abusive personality and abusive behavior in wife assaulters. *J. of Family Violence*, 11, 113-132.
- Gelles, R. J.(1972). *The violent home :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 and wives*. Newbury Park, NJ; Sage.
- _____(1991). Physical violence, child abuse, and child homicide: A Continuum of Violence, or Distinct Behaviors?. *Human Nature*, 2(1), 59-72.
- _____(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y (3rd ed.)*. Thousand oack, CA: Sage.
- Gelles, R. J. & Edfeldt, A.(1986). Violence towards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0, 501-510.
- Gelles, R.J., Lackner, R. & Wolfner, G.D.(1994). Men who batter: The risk markers. *Violence Update*, 4(12), 1-2, 4, 10.
- Gelles, R. J. & Straus, M. 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In Burr, W., Hill, R., Nye F.I., & Reiss, I.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Free Press.
- Hamberger, L.K. & Hastings, J. E.(1988). Characteristics of abusive men suggestive of personality disorder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9, 763-770.
- Hamberger, L.K., Lohr, J. M., Bonge, D. & Tolin, D. F.(1996). A large sample empirical typology of male spouse abusers and its relationship to dimensions of abuse. *Violence and Victim*, 11, 277-292.
- Holtzworth-Munroe, A. & Stuart, G.L.(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76-497.
- Hotaling, G. T. & Sugarman, D. B.(1990). A risk marker analysis of assaulted wives. *J. of Family Violence*, 5, 1-14.
- Leonard, K. E. & Blane, H.T.(1992). Alcohol and marital aggression in a national sample of young men. *J. of Interpersonal Violence*, 7, 19-30.
- Leonard, K.E. & Senchak, M.(1993). Alcohol and premarital aggression among newlywed couples. *J. of Studies Alcohol*, 11, 96-108.
- MacEwen, K. & Barling, J. (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 of Family Violence*, 3(1), 73-86.
- Margolin, G., John, R. S. & Foo, L.(1998). Interactive and unique risk factors for husband'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their wives. *J. of Family Violence*, 13(4), 315-344.
- Martin, B.Y.(1987). The historic roots of domestic violence. In Sonkin, D.J.(eds.), *Domesitic violence on trial: Psychological and legal demensions of family violence*, New York: Springer.
- O'Neil, J. M. & Harway, M.(1997). A multivariate model explaining men's violence toward women-Predisposing and triggering hypotheses. *Violence Against Women*, 3(2), 182-203.
- Pan, H. S., Neidig, P. H. & O'Leary, K. D.(1994). Predicting mild and Severe husband-to-wife physical aggressio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975-981.
- Rossenbaum, A. & O'Leary, K.D.(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e Couple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1), 63-71.

- Rouse, L.(1984). Models,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s factors contributing to spuse abuse. *Victimology*, 9, 130-141.
- Saunders, D.G.(1992).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62, 264-275.
- Shin, H. L.(1995). *Violence and Intimacy : Risk markers and predictors of wife abuse among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nyder, D.K. & Fruchtman, L.A.(1981). Differential patterns of wife abuse: A data-based typology.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6), 878-885.
- Stith, S.M. & Faley, S.C.(1993). Predictive model of male spousal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8(2).